

인도·공용도로 여전히 '제 땅'처럼 쓰는 주차장

광주 일부 도심주차장 '불법영업' 근절 안돼

구청·경찰 '관대한 단속'에 "선심행정" 비난

인도·공용 도로를 '제 땅'인 양 주차장으로 쓰는 도심 주차장의 '배짱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광주 시내 일부 주차장이 인도·차도를 점유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광주 2월 18일자 2면)에도, 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

는 실정으로 선거를 앞둔 자치단체의 '관대한' 단속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에 위치한 A·B주차장의 경우 허가받은 주차장 외에 인근 인도·공용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

이다. 폭 5m의 공용 도로를 사이에 둔 주차장 영업을 이뤄지다보니 공용 도로를 주차장화해 활용하면서 시민 통행권 침해 뿐 아니라, 공공 소유로 주차비까지 받아 챙기고 있는 셈이다.

A주차장의 경우 주차 가능대수는 18대, B주차장은 60대이다. 차도·인도를 점유하게 되면 한 주차장당 최대 6~8대 가량의 차를 더 주차할 수 있다.

한 주차장에서 시간당 2000원의 주차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최대 1만6000원의 매출을 더 올리게 되

는 셈이다.

특히 이같은 불법 영업에도 불구하고 관할 자치단체와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간혹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신고받고 현장에 나오는 구청 단속반은 "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달라"는 허구호만 외친 뒤 현장을 떠나는가 하면, 경찰은 "구청에 신고를 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상인들은 경찰이 며칠 전 도

심 A·B주차장 주변 인도·차도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경우 불법 영업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 단속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동구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가 장착된 지도차량을 이용해 매일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들 주차장만 계속 단속할 순 없지 않느냐"면서 "앞으로 이들 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근로정신대 피해보상하라"

27일 오전 광주 동구 지방법원에서 김재림(84)·심선애(84)·양영수(85) 할머니와 고(故) 오길에 할머니의 유족 오철석(78)씨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 월 23만9000원

5년 연속 증가... 전남은 16만8000원으로 소폭 줄어

지난해 광주지역 사교육비가 5년 연속 증가, 학생 1인당 월 23만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8000원이 늘어난 액수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교육비 총규모는 6565억원으로 전년도(6590억원)와 비슷했다. 이 중 초등학교가 2982억원, 중학교가 2189억원이었으며 고등학교는 1395억원이다.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교생 모두 늘어났다.

초등학생은 25만2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중학생은 27만3000원에서 28만원으로, 고등학생은 15만8000원에서 17만3000원으로 부담이 커졌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광역시의 경우 서울(32만8000원), 대전(25만9000원), 대구(24만2000원), 광주(23만9000원), 부산(22만9000원),

울산(22만4000원), 인천(20만8000원) 순이다.

전남지역 사교육비 총규모는 482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3% 감소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6만8000원으로, 작년(17만2000원)보다 2.3% 감소했다. 초등학생은 17만6000원에서 16만9000원으로, 중학생은 22만3000원에서 21만3000원으로 줄었으나, 고교생은 11만8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1절 앞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6억 추가 손해소

일제 감계기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3·1절을 앞두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7일 오전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김재림(84)·양영수(85)·심선애(84) 할머니와 숨진 오길에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78) 할아버지 등 4명이 소송의 원고로 청구액은 각 1억5000만원씩 모두 6억원

이다. 근로정신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다투던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항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4분 해질 18시 27분 달출 06시 52분 달몰 17시 21분

미세먼지 '보통'

오후부터 비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림	4/14°C
목포	흐림	3/9°C
여수	흐리고안개	7/11°C
나주	흐림	3/13°C
완도	흐리고안개	4/10°C
구례	흐림	3/13°C
강진	흐리고안개	4/11°C
해남	흐리고안개	4/10°C
장흥	흐리고안개	4/12°C
순천	흐리고안개	6/13°C
영광	흐림	3/12°C
진도	흐림	4/9°C
전주	흐림	3/14°C
군산	흐리고안개	2/11°C
남원	흐림	2/14°C
옥산도	흐리고안개	4/8°C

종형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관심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보통	보통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목포	00:54 ~ 06: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여수	08:39 ~ 02:0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20:47 ~ 14:40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3/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5/8	1/10	-1/10	0/9	2/7	-2/7

올 봄꽃 평년보다 1~3일 일찍 핀다

따뜻한 날씨로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은 지난해보다 1~3일 정도 일찍 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개나리는 3월 19일 완도를 시작으로 광주·여수 20일, 목포 21일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나리의 만개(滿開) 시기는 개화 일로부터 약 7일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화 직전의 날씨변화에 따라 개

화 시기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동일 위도에서 진달래는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평균 2일 정도 늦게 꽃이 피며, 봄꽃은 하루에 약 30km 정도 북상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올해 봄꽃 개화시기가 빠른 이유는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송고한 닛 기리자"... 광주·전남 곳곳 3·1절 기념행사

제95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는 1일 오전 10시 빛고을문화관에서 3·1절 기념식을 갖는다.

수피아여고는 이날 기독교 목회자·교직원·학생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에서 빛고을문화관까지 행진하며 독립만세 운동을 재연한다. 전남도는 같은 날 청사 감대중강당에서 박준영 지사 등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행사를 연다. 앞서 지난 27일 도는 청사 외벽에 가로 20

m·세로 65m·무게 400kg의 대형 태극기를 게양했다.

각 시·군에서도 다양한 3·1절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목포시는 3·1절 당일 3·1독립운동탑에서 참배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수시는 이날 오후 한라로공원에서 여수항일독립운동기념탑 기공식을 한다. 순천시는 이날 낙안읍성에서 3·1운동을 재현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